

풍수원 성당

* 신앙을 유지한 산골에 세워진 강원도 첫 번째 성당

주소: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097 (경강로 유현1길 30)

전화(033)342-0035 (033)343-5694 홈페이지 <http://www.pungsuwon.org>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9호(성당),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63호(구 사제관)

한국 천주교회의 특징은 첫째, 성직자의 도움 없이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창설했고 둘째, 학문 연구에서 출발한 것이 종교와 신앙으로 발전했으며 셋째, 신앙이 교우들에게 뿌리 내리면서 성직자를 영입하려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강원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도 역시 같은 양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풍수원 성당이다. 1888년 6월 20일 본당이 설립되어 풍수원에 세워진 현재의 성당은 1909년에 낙성식을 가진 건물로서 한국인 신부가 지은 첫 번째 성당이고, 강원도 최초의 서양식 벽돌조적 건축물이자 한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고딕 · 로마네스크 양식의 벽돌조적 성당이다. 이런 이유로 성당 건물은 1982년 11월 3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었고, 성당보다 5년 늦은 1912년 건립에 들어가 이듬해 완공하여 현재는 유물관으로 사용하는 구 사제관 또한 2005년 4월 15일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63호로 지정되었다. 구 사제관은 원형이 잘 남겨진 벽돌조적 사제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강원도 지역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신유박해가 일어나던 1801년경으로 보인다. 이때 서울과 경기도 용인 등지에 살던 교우들은 박해의 칼날을 피해 강원도나 충청도의 산간 지역으로 숨어들게 된다. 식솔을 이끌고 혹은 혈혈단신으로 관현의 눈을 피해 산으로 계곡으로 피난처를 찾던 이들 중에서 신태보 베드로는 40여 명의 교우들을 이끌고 강원도 횡성군의 풍수원으로 들어선다. 이들이 바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촌인 풍수원을 이룬 당사자들이다.

그들은 여기에서 교우촌을 형성하면서 강원도 최초의 본당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닦는다. 바람 소리 새 소리가 유난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감히 다가들지 못하는 첩첩산중에서 이들 신앙 공동체는 소박하지만 평화롭게 기도와 생활을 영위한다.

1866년 병인박해와 1871년 신미양요는 또다시 수많은 교우들을 고향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이 때 교우들은 사방으로 연락을 취해 피난처를 찾던 신자들을 불러 모아 큰 촌락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끼리 모인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화전(火田)을 일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용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1886년 조불 조약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교우들은 처음 풍수원으로 찾아든 이래 무려 80여 년 동안은 목자 없이 오로지 평신도들로만 신앙 공동체를 이룬 채 믿음을 지켜 왔던 것이다.

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확보된 그 이듬해 교우들은 목자가 없는 양 떼들을 위해 신부가 상주해 돌보아 주기를 열망하게 된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1888년 당시 조선 교구장이었던 뮈텔(Mutel) 민대주교는 풍수원 본당을 설립하고 초대 주임으로 파리 외방전교회의 르 메르(Le Merre) 이(李) 신부를 임명했다. 르 메르 신부는 이로써 춘천, 화천, 양구, 홍천, 원주, 양평 등 12개 군을 관할했고 당시 신자 수는 약 2,000명에 이르렀다. 아직 서양식 성당 건물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초가집 20여 칸을 성당으로 사용했었다.

그러다가 1896년 제2대 주임으로 부임한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는 중국인 기술자들과 함께 현재의 성당을 1905년에 착공해서 1907년에 준공했고 2년 뒤인 1909년에 낙성식을 거행했다. 이 성

당은 신자들이 직접 벽돌을 굽고 아름드리나무를 해 오는 등 건축 소재를 스스로 조달했는데 그 열성은 가히 오늘날 신자들이 본받을 만한 것이었다.

풍수원성당의 교세는 크게 확장됐고 원주, 춘천, 양평, 횡성, 평창, 홍천 등 주위의 본당들은 모두 풍수원으로부터 분가되어 나온 것이다. 이처럼 강원 지역 전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풍수원 성당에는 오랜 세월 성숙된 신앙의 유산을 배우고 묵상하고자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풍수원 성당은 개인이나 가정 또는 단체로 피정을 할 수 있는 피정의 집과 1997년 구 사제관을 대대적으로 개조하여 1999년 5월 11일 유물관을 개관하였다. 유물관에는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와 신앙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유물과 역대 본당 신부들이 사용했던 제의와 제구 등 다양한 역사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시하였다.

풍수원성당과 횡성군은 2000년부터 강원도 유형 문화재인 성당 일대에 유현 문화관광지(바이블 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성당 일대에 조성되는 유현 문화관광지에는 성지를 방문하는 신자들을 위한 대형 광장과 진입로, 유물 전시관, 피정의 집과 휴양촌, 지하성당과 가마터를 복원한 역사마을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계획이다.

2002년부터 본격화된 유현 문화관광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그 해 5월 23일 십자가의 길 축복식을 가졌고 진입로 확장 공사도 이루어졌다. 2003년에는 금대리에 위치한 유현 초등학교 금대 분교(2001년 폐교)를 임대하여 생명학교를 운영하며 귀농학교를 설립하였다. 개인과 가정, 단체로 피정이 가능한 청소년 야영장도 마련하고, 십자가의 길이 끝나는 산 정상에는 회개동산을 조성하였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당 뒤편에 강론광장을 조성하고 그 옆에 신앙 선조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농기구와 민속품, 성물과 기도서 등을 전시하는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2013년 4월 30일 축복식을 가졌다. 이로써 유현 문화관광지 1단계 조성 사업을 마친 원주교구와 횡성군은 2단계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성당 건축을 위해 벽돌을 구웠던 가마터와 말을 세워 놓고 쉬어 가던 원(院)터와 쉼터 등을 조성하였다. 2018년 6월 20일에는 유물관으로 사용하던 구 사제관을 복원하여 축복식을 갖고 역사관으로 새로 개관했다.

풍수원 성당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성체 현양 대회가 매년 열리는데, 제1회 성체 대회가 1920년에 실시된 이래 6·25로 빠진 3년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열려 왔다. 오랜 역사만큼 30여 명이 넘는 사제를 배출한 성소의 못자리로서도 풍수원 성당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자 신태보 베드로(1769-1839년)

경기도의 용인 근처에서 태어난 신태보(申太甫) 베드로는, 1795년 무렵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신자가 되었다. 그의 집안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뒷날의 행적에서 미루어볼 때 그는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학식을 습득했던 것 같다. 1840년 전주에서 순교한 최조이 바르바라는 그의 며느리였다.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10년이 지난 뒤, 사촌인 이여진 요한과 함께 입교한 신 베드로는 일찍부터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만나 성사를 받고자 하였지만, 주 야고보 신부가 워낙 비밀리에 활동하였던 탓에 만날 수가 없었다. 이후 신 베드로는 1801년 신유박해가 끝난 뒤, 용인에 거주하던 순교자의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로 이주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그러다가 사촌 이 요한

을 비롯하여 다른 교우들과 연락이 닿게 되자, 그들과 함께 교회 재건 운동을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교우들이 가장 시급한 일로 생각한 것이 바로 북경에서 다시 성직자를 영입해 오는 일이었다. 그 결과, 1811년 말에 이 요한이 교우 한 명과 함께 북경으로 가서, 신자들의 서한 두 통을 전하게 되었다.

조선 신자들의 성직자 영입 운동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신 베드로는 이를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신자들의 희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 베드로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기로 작정하고,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경상도 상주의 잣골에 정착하여 은둔 생활을 하였다. 그동안 그는 교회 서적을 필사하여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다.

1827년 전라도에서 정해박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신 베드로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그는 가족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주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상주의 포졸들과 함께 잣골로 들이닥쳤다. 당시 포졸들은 이미 체포된 신자들을 통해 교회 서적을 필사하여 나누어준 사실과 그의 거주지를 알고 있었다.

신 베드로는 이내 전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뒷날 그 자신이 성사탕(St. J. Chastan, 鄭) 신부의 명에 따라 기록한 ‘옥중 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 다음의 내용은, 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 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내 다리는 살이 헤어져서 뼈가 드러나 보였으며, 앓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내 상처는 굶아서 참을 수 없는 악취를 풍겼다. 더욱이 내 방은 벌레와 이투성이였으므로, 아무도 내게 근접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다행히 건강한 몇몇 교우들이 부축을 해 주어 몸을 좀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가끔 내 방을 치워 주기도 하였다. 이 애덕의 행위를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처럼 형벌을 당하면서도 신 베드로는 결코 교회 서적과 동료들이 있는 곳을 밀고하지 않았다. 또 관장이 배교를 강요할 때면, “천주교가 없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감사는 할 수 없이 신 베드로를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옥에 가두어 두도록 하였고, 그는 12년 동안을 전주 옥에서 생활해야만 하였다. 그동안 그는 때때로 마음이 약해진 적도 있었지만, 언제나 용맹한 신앙심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그러다가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에, 임금의 명에 따라 전주 장터(숯정이)로 끌려 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39년 5월 29일(음력 4월 1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가량이었다.

신태보 베드로는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사목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cus)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시복미사가 거행된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조선시대 주요 사법기관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며, 또한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서소문 밖 네거리 · 당고개 · 새남터 ·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순교의 길이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은 매년 5월 29일에 함께 축일을 기념한다.

제2대 주임신부 정규하(鄭圭夏) 바오로(1863-1943년)

충남 아산군 신창면 남방리(忠南 牙山郡 新昌面 南方里)에서 부(父) 정기화(鄭基化, 마태오)와 모(母) 한 마르타의 3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 병인(丙寅) 박해로 가족과 함께 충청도 일대를 유랑, 음

성(陰城) 장호원을 거쳐 15세 경 충주(忠州) 근방 소탕이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재산을 전부 잃고는 다시 경기도 광주(廣州)로 이주, 그 뒤 블랑(Blanc, 白圭三) 주교에 의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상경, 명동 주교관 내 글방[韓漢學校]에서 공부하다가 1884년 3명의 동료와 함께 말레이반도의 페낭 신학교로 유학하였으나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 1891년 신학생들과 함께 귀국, 새로 설립된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1896년 4월 26일 뮈텔(Mutel, 閔德孝) 주교의 주례로 강도영(姜道永, 마르코), 강성삼(姜聖三, 라우렌시오)과 함께 약현 성당에서 사제로 서품, 서품 후 강원도 횡성(橫城) 풍수원(豐水院) 본당 주임신부로 임명되어 선종할 때까지 47년간을 그 곳에서 사목(司牧)하였다.

부임 초, 동학혁명의 실패와 1896년의 명성황후 시해사건, 아관파천(俄館播遷) 등으로 전국에서 의병(義兵)이 일어나 산골인 풍수원에도 나타나곤 했는데 그들을 맞아 격려하고 침식을 제공하였고 풍수원 본당 교우들 중에도 상당수가 의병에 가입하였다. 1907년에는 건평 120평의 연와조 성당을 건축하였고, 1910년 한일합방이 일어나자 성당 사랑방에 삼위학교(三爲學校)을 개설하고 논산에서 박 토마스를 선생으로 초빙, 학생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는 한편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를 가르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이 삼위학교는 후일 광동국민학교로 발전하였다. 1942년 노환으로 보좌 김학용(金學用) 신부에게 풍수원 본당의 운영을 맡기고 휴양하다가 이듬해인 1943년 10월 23일 81세로 선종, 풍수원 성당 뒷산 성직자 묘지에 안장되었다.

곰실 공소

*춘천 죽림동 성당의 모체가 된 곰실 공소

주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439-1 (동내로 220)

전화 (033)262-0695 홈페이지 <http://juklim.cccatholic.or.kr>

관련기관: 죽림동 성당 (033)254-2631 강원도 춘천시 약사고개길 23

천주교의 강원도 전래 - 신해박해(1791년), 을묘박해(1795년)에 이은 신유박해(1801년)을 겪으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하여 살던 교우들이 충청도 · 강원도 등의 산간벽지로 숨어들어갔는데, 이들 중 경기도의 신태보 베드로가 40여 명의 교우를 이끌고 갓은 고생 끝에 강원도 횡성군 풍수원으로 피난하여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우촌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강원도 지방에 천주교가 전래된 지 80여 년 동안, 상주하는 신부 없이도 교인 수는 소리 없이 늘어 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1888년 서울에서 조선 대목구장 뮈텔(Mutel) 민 주교에 의해 파견된 파리 외방전교회 르 메르(Le Merre, 李類斯) 신부가 주임으로 부임하면서 풍수원이 본당이 되었으니 신태보 베드로의 피난 이후 무려 87년만의 일이었다.

풍수원 성당과 곰실 공소의 성장 - 당시 풍수원 본당은 춘천, 원주, 화천, 양구, 홍천, 횡성, 평창, 양평 등 12개 군에 걸쳐 29개 공소에 2천여 명의 교우를 관할하게 되었다. 르 메르 신부 후임으로 방인사제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1896년부터 1943년까지 48년 동안이나 2대 풍수원 주임으로 있으면서 교회는 강원도 땅에 깊이 뿌리내렸다.

춘천교구 사적비.풍수원의 교세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이미 1896년 원주 본당 분할을 비롯하여 1920년에는 춘천(죽림동의 전신인 곰실) 본당을, 1948년에는 홍천 물구비(현 양덕원) 본당을 분할 독립시켰다.

풍수원 본당은 경성(서울) 대목구로부터 1939년 4월 25일 춘천 지목구(1955년 9월 20일부터는 대

목구, 1962년 3월 10일부터는 교구)가 분할 · 설립되면서 춘천 교구로 편입되었다가, 1965년 3월 22일 원주 교구가 춘천 교구로부터 갈라져 나가면서 이번에는 원주 교구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죽림동 본당의 모체인 춘성군 동내면 고은리 곰실 공소는 1920년에 본당으로 정식 설립되기까지 정규화 신부가 해마다 서너 번씩 찾아가 가정집과 '강당'에 모이곤 하였으나 교우 수가 무려 300명에 이르자 본당 설립과 상주 사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죽림동 본당의 모체인 곰실 공소 - 우리나라의 신앙 전래가 외국 선교사의 전교 없이, 스스로 신앙 교리를 찾아 그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듯이, 춘천 지역 또한 교회의 정착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다. 이 경우 역시 천부적인 종교심성을 지닌 한 젊은이의 자발적인 신심과 열정이 훌륭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그 공로자인 청년의 이름은 엄주언 마르티노(말딩)였다.

엄주언(嚴柱彦) 마르티노는 1872년 12월 10일(음) 춘성군 동면 장학리 노루목에서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착하고 총명하던 그는 열아홉 살이 되던 해인 1891년 우연히 "천주실의"와 "주교요지"를 읽고 감명을 받은 나머지 구도에 나설 것을 결심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893년 늦가을에 그는 만형과 함께 일곱 식구를 모두 데리고 우리나라 천주교의 발상지인 경기도 광주 천진암을 찾아가 그곳에 움막을 짓고 어렵게 지내면서 교리를 배워 이듬해에는 형과 함께 프랑스인 목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엄주언의 딸 엄 루치아의 증언이나 1894년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중에서 '목' 씨 성을 가진 신부는 없었다). 그렇게 3년간의 광주 생활을 마칠 무렵인 1896년에 나머지 가족도 다 영세한 후 굳은 전교 사명감을 품고 고향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천주학쟁이로 냉대를 받으며 마을에서 쫓겨나 외가의 도움으로 고은리 윗 너브랭이라는 곳에 폐가 한 채를 사서 겨우 정착하였다.

엄주언 일가는 이처럼 친척과 이웃으로부터 따돌림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맨손으로 어렵사리 화전을 일구어 가며 묵묵히 살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주경야독 하며 근검하게 사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차츰 감동하여 가르침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윗 너브랭이에서 여러 해 땀 흘린 보람이 있어 살림과 농지를 늘려 아랫 너브랭이로 옮겼다가 다시 곰실 공소로 옮긴 후 조출한 '강당'까지 마련하여 공소 예절을 보게 되자, 물구비 · 춘천 · 화천 · 양구 순으로 공소를 순방하던 정규화 신부가 곰실에서 해마다 40-50명 쯤 세례를 줄 정도가 되었다. 곰실 공소 교우들은 엄 회장 지도하에 자선 봉사와 엄하고 독실한 모범적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마침내 300명 가까운 수로 늘어났다. 1920년에는 제대로 규모를 갖춘 공소를 건립하고 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실로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곰실 본당의 춘천 진출 - 이렇게까지 되는 동안 엄 회장이 풍수원과 서울 명동을 수년간 거둬방문하면서 상주사제 파견을 간청한 결과 마침내 곰실 공소가 본당으로 설립되면서 1920년 9월 초대 김유룡(金裕龍) 필립보 신부를 모시게 되었다. 활기 넘치는 곰실 공동체는 춘천 시내 진출을 위해 교우 전원이 애련회(愛煉會, 연령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여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 짚신 삼기 등을 통해 몇 해에 걸쳐 푼푼이 애써 모은 돈에 논까지 팔아 약사리(藥師里) 고개 현 죽림동 성당 아래 골룸반 병원 터와 아랫마당 그리고 수녀원 터인 당시 김영식의 대자의 집(약사리 148번지)을 사서 개조하여 1928년 5월부터 춘천 본당의 옛 성당으로 쓰게 되었다.

그 후 4대의 방인사제가 1938년까지 주임을 맡다가 같은 해에 강원도 지역의 사목 책임이 골룸반 외방선교회에 위임되고, 곧이어 라리보(Larribeau, 元) 주교가 맡고 있던 서울(경성) 대목구에

서 춘천 지목구가 1939년 4월 25일자로 분할되면서 새 지목구의 초대 지목구장으로 당시 광주 지목구장인 오원 맥폴린(Owen McPolin) 신부가 겸임을 하였으나 임지에 가서 직접 사목활동을 하지 못한 채 얼마 후 춘천 본당 주임으로 있던 퀴란(Quinlan, 具) 신부를 대리로 임명하였다. 퀴란 신부는 1940년 12월 8일 2대 지목구장이 되었다.

1938년 10월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춘천 본당 6대 주임으로 부임한 퀴란 토마스 신부는 부임 직후 약사리 고개 언덕에 있는 도토리 밭을 매입하여 현재의 성당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50년에 죽림동 본당으로 개명하였다. 골롬반 외방선교회는 춘천 교구를 1994년에 제6대 교구장 장익 요한 주교가 부임하기까지 모두 55년간 사목하였다. 이렇게 자립한 춘천 교구가 1999년 4월 25일에 60주년을 맞았다.

평신도 추념의 날과 곰실 공소 중창(重創) - 본당이 춘천으로 옮겨간 후 곰실 본당은 공소로 변경되었고, 1969년 11월 20일 죽림동 본당에서 효자동 본당이 분가한 후에는 효자동 본당 관할 공소가 되었다. 춘천교구는 1998년 11월 11일 성 마르티노 축일에 죽림동 본당의 모체가 된 곰실 공소에서 선교활동을 펼쳤던 평신도 엄주언 마르티노 회장을 비롯해 평신도사도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며 춘천지역 선교의 초석이 된 평신도들을 기리기 위해 '평신도 추념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기념하고 있다.

2006년 9월 15일, 춘천교구는 곰실 공소가 죽림동 주교좌본당과 춘천교구 자체의 발상지라는 의미를 살려 효자동 본당 관할에서 죽림동 주교좌 관할로 영구히 옮겼다. 그리고 오랜 세월 풍상으로 낡은 곰실 공소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여 2009년 11월 11일 교구장 장익 주교의 주례로 중창 축복식을 가졌다. 이번 중창을 통해 곰실 공소 내부는 제대와 독경대, 성미술품 등을 새로 갖추게 되었다.

죽림동 성당

- * 6·25 전쟁 때 피살 당한 성직자들의 묘소 보존
주소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38 (약사고개길 23)
전화 (033)254-2631 팩스 (033)257-2631 홈페이지 <http://juklim.cccatholic.or.kr>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54호

천주교의 강원도 전래 -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실학(實學)의 학풍을 일으킨 남인(南人)계 선비들이 18세기 말엽에 이른바 강학회(講學會)를 연 것이 교리 탐구와 신앙 수련의 모태가 되면서 천주교 신앙이 이 땅에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들 중 이승훈 베드로가 1784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선배와 동지들에게 세례를 주면서부터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태동하였으나 멀지 않아 거센 박해를 받게 되었다.

신해박해(1791년)와 을묘박해(1795년)에 이은 신유박해(1801년)에 이르러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하여 살던 교우들이 충청도·강원도 등의 산간벽지로 숨어들어갔는데, 이들 중 경기도의 신태보 베드로가 40여 명의 교우를 이끌고 갖은 고생 끝에 강원도 횡성군 풍수원으로 피난하여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우촌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퍼져나간 신앙에 귀의한 초기 교우들 가운데 춘천 신읍리 지방의 최 요한과 회양 지방의 조신철 가롤로처럼 1815년에 투옥된 이들이 있는데, 조신철 가롤로는 강원도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이들보다 늦게 1840년에는 춘천에서 신자 아홉 명이 투옥되어 그 중 두 명이 옥사하기도 하였다. 1880년

을 전후하여 종교의 자유가 공인되기까지 강원도의 시골 교우촌을 두루 다니며 힘겹게 전교에 헌신한 김 시몬 신부와 최 요한 신부도 울진과 춘천 말고개에서 각각 잡혀 모두 원주 감영에서 치명하였다.

이처럼 강원도 지방에 천주교가 전래된 지 80여 년 동안, 상주하는 신부 없이도 교인 수는 소리 없이 늘어 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1888년 서울에서 조선 대목구장 뮈텔(Mutel) 민 주교에 의해 파견된 파리 외방전교회 르 메르(Le Merre, 李類斯) 신부가 주임으로 부임하면서 풍수원이 본당이 되었으니 신태보의 피난 이후 무려 87년만의 일이었다.

풍수원 성당과 곰실 공소의 성장 - 당시 풍수원 본당은 춘천 · 원주 · 화천 · 양구 · 홍천 · 횡성 · 평창 · 양평 등 12개 군에 걸쳐 29개 공소에 2천여 명의 교우를 관할하게 되었다. 르 메르 신부 후임으로 방인사제 정규하(鄭圭夏)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1896년부터 1943년까지 48년 동안이나 2대 풍수원 주임으로 있으면서 교회는 강원도 땅에 깊이 뿌리내렸다.

풍수원의 교세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이미 1896년 원주 본당 분할을 비롯하여 1920년에는 춘천(죽림동의 전신인 곰실) 본당을, 1948년에는 홍천 물구비(현 양덕원) 본당을 분할 독립시켰다.

풍수원 본당은 경성(서울) 대목구로부터 1939년 4월 25일 춘천 지목구(1955년 9월 20일부터는 대목구, 1962년 3월 10일부터는 교구)가 분할 · 설립되면서 춘천 교구로 편입되었다가, 1965년 3월 22일 원주 교구가 춘천 교구로부터 갈라져 나가면서 이번에는 원주 교구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죽림동 본당의 모체인 춘성군 동내면 고은리 곰실 공소는 1920년에 본당으로 정식 설립되기까지 정규하 신부가 해마다 서너 번씩 찾아가 가정집과 강당에 모이곤 하였으나 교우 수가 무려 300명에 이르자 본당 설립과 상주 사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죽림동 본당의 모체인 곰실 공소 - 우리나라의 신앙 전래가 외국 선교사의 전교 없이, 스스로 신앙 교리를 찾아 그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듯이, 춘천 지역 또한 교회의 정착이 그와 같은 길을 걸었다. 이 경우 역시 천부적인 종교심성을 지닌 한 젊은이의 자발적인 신심과 열정이 훌륭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그 공로자인 청년의 이름은 엄주언 마르티노(말딩)였다.

엄주언(嚴柱彦) 마르티노는 1872년 12월 10일(음) 춘성군 동면 장학리 노루목에서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착하고 총명하던 그는 열아홉 살 되던 해인 1891년 우연히 “천주실의”와 “주교요지”를 읽고 감명을 받은 나머지 구도에 나설 것을 결심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893년 늦가을에 그는 만형과 함께 일곱 식구를 모두 데리고 우리나라 천주교의 발상지인 경기도 광주 천진암을 찾아가 그곳에 움막을 짓고 어렵게 지내면서 교리를 배워 이듬해에는 형과 함께 프랑스인 목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엄주언의 딸 엄 루치아의 증언이나 1894년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중에서 ‘목’씨 성을 가진 신부는 없었다). 그렇게 3년간의 광주 생활을 마칠 무렵인 1896년에 나머지 가족도 다 영세한 후 굳은 전교 사명감을 품고 고향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천주학쟁이로 냉대를 받으며 마을에서 쫓겨나 외가의 도움으로 고은리 윗 너브랭이라는 곳에 폐가 한 채를 사서 겨우 정착하였다.

엄주언 일가는 이처럼 친척과 이웃으로부터 따돌림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맨손으로 어렵사리 화전을 일구어 가며 묵묵히 살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주경야독 하며 근검하게 사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차츰 감동하여 가르침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윗 너브랭이에서 여러 해 땀 흘린 보람이

있어 살림과 농지를 늘려 아랫 너브랭이로 옮겼다가 다시 곰실 공소로 옮긴 후 조출한 강당까지 마련하여 공소 예절을 보게 되자, 물구비 · 춘천 · 화천 · 양구 순으로 공소를 순방하던 정규하 신부가 곰실에서 해마다 40-50명 씩 세례를 줄 정도가 되었다. 곰실 공소 교우들은 엄 회장 지도하에 자선 봉사와 엄하고 독실한 모범적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마침내 300명 가까운 수로 늘어났다. 1920년에는 제대로 규모를 갖춘 공소를 건립하고 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실로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곰실 본당의 춘천 진출 - 이렇게까지 되는 동안 엄 회장이 풍수원과 서울 명동을 수년간 거듭 방문하면서 상주사제 파견을 간청한 결과 마침내 곰실 공소가 본당으로 설립되면서 1920년 9월 초대 김유룡(金裕龍) 필립보 신부를 모시게 되었다. 활기 넘치는 곰실 공동체는 춘천 시내 진출을 위해 교우 전원이 애련회(愛煉會, 연령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여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 짚신삼기 등을 통해 몇 해에 걸쳐 푼푼이 애써 모은 돈에 논까지 팔아 약사리(藥師里) 고개 현 죽림동 성당 아래 골룸반 병원 터와 아랫마당 그리고 수녀원 터인 당시 김영식의 대자의 집(약사리 148번지)을 사서 개조하여 1928년 5월부터 춘천 본당의 옛 성당으로 쓰게 되었다.

그 후 1938년 제5대 유영근 요한 신부까지 방인사제가 주임을 맡다가 같은 해에 강원도 지역의 사목 책임이 골룸반 외방선교회에 위임되고, 곧이어 라리보(Larribeau, 元) 주교가 맡고 있던 서울(경성) 대목구에서 춘천 지목구가 1939년 4월 25일자로 분할되면서 새 지목구의 초대 지목구장으로 당시 광주 지목구장인 오원 맥폴린(Owen McPolin) 신부가 겸임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임지에 가서 직접 사목활동을 하지 못한 채 얼마 후 춘천 본당 제6대 주임으로 있던 퀴란(Quinlan, 具) 신부를 대리로 임명하였다. 퀴란 신부는 1940년 12월 8일 제2대 지목구장이 되었다.

1938년 10월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춘천 본당 제6대 주임으로 부임한 퀴란 토마스 신부는 부임 직후 약사리 고개 언덕에 있는 도토리 밭을 매입하여 현재의 성당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50년에 죽림동 본당으로 개명하였다. 골룸반 외방선교회는 춘천 교구를 1994년에 제6대 교구장 장익 요한 주교가 부임하기까지 모두 55년간 사목하였다.

새 성당 건립 - 현재의 죽림동(竹林洞) 성당은 김유룡 신부와 엄 회장이 이끈 곰실 교우들이 애써 마련한 아랫터에 보태어 퀴란 토마스 신부가 매입한 언덕 위에 서게 되었는데, 그 기공식은 성당 벽에 라틴어로 붙어있는 초석이 말하듯이 1949년 4월 5일에 있었다. 새 성당의 건립은 퀴란 신부가 주임으로 부임한 지 2년 후인 1941년에 감목 대리직을 맡으면서 계획해 오던 것이지만 일제 치하의 외국인 구금 및 연금으로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과 더불어 1946년에 그가 다시 복직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다시 미루다가 다행히 미군부대의 도움을 얻어 1949년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되었다.

실제 건축 작업은 전남 광주에서 온 ‘자’씨 성의 한 화교 기술자와 또 한 사람의 기술자가 맡았다. 석재는 멀리 홍천 발산리 강가에서 날라다 썼다. 그러나 거의 한 해 동안 돌로 외벽을 훌륭하게 다 쌓고 동판 지붕까지 덮고 나서 내부 공사에 들어갈 참에 6.25 전쟁이 터졌다.

성당 파괴와 납북 - 기막힌 전란이 터지자 춘천시에서는 그 이튿날인 6월 26일 아침부터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납침이 시작된 바로 다음 주일인 7월 2일, 퀴란 토마스 지목구장 신부가 본당 미사를 드리는데 인민군이 들이닥쳐 성당 안에서 공포를 쏜 후 20여 명의 교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캐나반(Canavan, 孫) 보좌신부와 함께 체포 연행하였다. 소위 이 ‘죽음의 행진’으로 교황사절 번(Byrne, 方) 주교를 비롯한 외국인 사제, 수녀, 개신교 목사 등 수백 명이 끌려가 평안

복도 어느 험한 산비탈에 강제 수용되었는데, 캐나반 신부도 번 주교처럼 그곳에서 모진 고생과 추위를 못 이겨 선종하였다. 그래도 1953년 4월까지 34개월간의 포로 생활에서 기적같이 살아서 돌아온 사람 중에는 퀴란 토마스 신부와 크로스비 필립보 신부도 있었다.

그리고 라 파트리치오 신부, 고 안토니오 신부, 진 야고보 신부는 모두 아일랜드 출신으로 1950년 남한에서 피살되었다. 이렇게 6.25 전쟁 중에 순교하거나 납북되어 모진 고생 끝에 생환한 후 선종한 성직자들의 시신은 죽림동 성당 뒷마당의 성직자 묘역에 모셔져 있다.

이밖에도 춘천 지목구에서는 6.25 전쟁을 전후로 평강 본당의 백응만(白應萬, 다마소) 신부가 연행되어 옥사했고, 의주 본당의 김교명(金敎明, 베네딕토) 신부가 행방불명되었으며, 소양로 본당의 콜리어(Collier, 高) 신부와 홍천 본당의 크로스비(P. Crosbie, 趙) 신부도 퀴란 지목구장 신부와 함께 죽음의 행진을 했다. 연길·함흥·원산 지역의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신자들의 남하를 헌신적으로 돕던 양양 본당의 이광재(李光在, 티모테오) 신부 또한 1950년 6월 24일 공산군에게 연행되어 원산 와우동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0월 9일 총살당하였다.

처참한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3일부터 중공군이 밀물처럼 쳐들어오자 국군은 이른바 1.4 후퇴라는 참패를 당하였고, 5월에는 유엔군의 반격이 있었는데 그 작전 중의 공습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짓다만 죽림동 새 성당의 한쪽 벽이 무너지고 사제관 등 부속 건물이 대파되었다.

성당 복구와 완공 - 이 와중에서도 1951년 8월에 제13대 본당 주임으로 부임한 커머포드(Comerford, 孔) 토마스 신부는 마당에 천막을 치고 미사를 드리면서 서서히 복구 준비를 하였다. 복구 준비는 한참 전란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교황청의 지원으로 비교적 잘 진전되어 1953년에는 대부분 완료되었다. 한편 수용소에서 살아온 퀴란 신부는 그곳에서 순교한 번 주교의 뒤를 이어 한동안(1953-1957년) 교황사절 서리를 겸하였다. 1955년 9월 20일 춘천이 지목구에서 대목구로 승격되자 퀴란 신부는 11월 23일 초대 춘천 대목구장으로 부임하면서 주교로 서품되었다. 이듬해인 1956년 6월 8일, 춘천 교구와 죽림동 성당 주보 축일인 예수성심 대축일에 새로운 모습을 갖춘 주교좌성당의 봉헌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주교좌성당 중창(重創) - 모두가 것처럼 힘을 모아 파괴된 성당을 복구하고 완공했던, 그 어려운 시대에 최고로 잘 지은 훌륭한 죽림동 성당이었지만 4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크게 보수할 필요성이 생겼다. 누수로 삭아가는 지붕과 천장, 몹시 녹이 쓴 창틀과 꺼지는 마루, 뒤틀린 문틀, 누전 위험이 큰 배선 등 견고한 석조 벽채를 제외하고는 가벼운 개보수를 넘어 총체적 중창을 해야 할 형편이었다.

2000년 대희년과 교구 설정 60주년이라는 성숙과 도약의 뜻깊은 해도 아울러 맞게 된 춘천 교구로서는 그 상징이자 중심인 죽림동 예수성심 주교좌성당의 모습을 일신하여 새 천년 기에 들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 일을 더욱 뜻있게 이루고자 방인으로서의 처음으로 1994년 12월 14일 춘천 교구장으로 착좌한 장익 요한 주교는 죽림동 본당 제22대 주임 이정행 요한 신부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협조와 가톨릭 미술가회 중진 작가들의 적극적 참여에 힘입어, 1998년 4월부터 다섯 달에 걸쳐 성당 안팎 공간의 형태는 역사적인 모습 그대로 보존한 채 순전히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기량과 성의와 노력으로 전례 거행에도 합당하고 예술적으로도 흡족한 성당을 실현하는데 진력하여 마침내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에 중창 축복식을 가졌다. 또한 80여 년 전 죽림동 성당을 마련하고 주교좌성당의 기초를 놓은 엄주언 마르티노 회장의 공적을 기리고 춘천교구 가톨릭 회관으로서의 전교 사업을 목적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말딩회관'(사제관 포함)을 건립하여 1999년 4월 24일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주교좌성당 성역화 - 죽림동 성당은 2003년 6월 25일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되었고, 2012년 11월 21일 말당회관 내에 본당 설립 100주년(2020년)을 앞두고 마련한 역사전시실 축복식을 가졌다. 그리고 2013년 6월 14일 춘천교구장 김운회 주교는 죽림동 성당 성역화 사업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해 그해 12월 1일 축복식을 가졌다. 죽림동 성당 성역화 사업은 성전이 지닌 역사와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근현대 신앙 증인들과 순교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현양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성 골롬반 의원 폐원과 성 골롬반 수녀원 이전으로 확보된 성당 앞 부지에 전정 · 중정 · 회랑 등을 지어 새롭게 단장하였다. 2014년 6월 1일에는 교구 주보이자 본당 주보인 예수성심상(오광섭 작)을 새로 제작하여 시내 중심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성당 입구 언덕 위에 설치하고 축복식을 가졌다. 이는 청동 소재로 된 예수성심상 중에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죽림동성당 뒤뜰에는 성직자 묘역이 단장돼 있다.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에 포함돼 시복 재판 중인 순교 사제 7명의 묘소와 초대 교구장 킴란 주교를 비롯해 선종한 교구 성직자들의 묘소다. 순교자 7위의 묘소 중 앤서니 콜리어 · 제임스 매긴 · 패트릭 라일리 신부의 묘소에는 유해가 안장돼 있고, 북한 지역에서 순교해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백응만(다마소) · 이광재(티모테오) · 김교명(베네딕토) · 프랜시스 캐너벤 신부 묘소는 가묘이다. 묘역 옆에 순교자를 현양하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 통일을 염원하는 5m 높이의 나무 십자가가 서 있다. 2000년 대희년 6월 25일 강원도 철원군 월정리 역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전국대회’ 때 설치한 제단 십자가이다.

이처럼 춘천교구 주교좌 죽림동성당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순교자, 오늘을 사는 신앙인을 전례와 신앙 안에서 현존할 수 있도록 잇는 아름다운 하느님의 집이다.

< 1950년 6.25전쟁 때 춘천교구에서 순교 · 납북되었던 성직자 >

성명	세례명	출생지	생년월일	서품일	순교일	순교
진(Pt. Maginn)	마고보	미국(골)	1910	1935	1950.7.4	피살
라 (P. Reilly)	바드리시오	아일랜드(골)	1915	1941	1950.7.	피살
고(A. Collier)	안토니오	아일랜드 (골)	1913	1938	1950.6.27	피살
 백응만	다마소	강원도 미천	1919	1945.4.13	1950.1	목사
 손카나반 (F. Canavan)	프란치스코	아일랜드 (골)	1915	1941	1950.12.6	목사
 이광재	티모테오	강원도 미천	1909.6.9	1936	1950.10.9	피살
 구인란(Quinlan) 교구장	토마	아일랜드 (골)	1896.9.13	1955 (주교서품)	1970.12.31	납북 생환
 조선희 (Philip Crosbie)	필립보	오스트레일리아 (골)	1915.11.10	1939.12.21	2005.3.24	납북 생환

※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맑은고딕체로 입력된 부분)

답사 때 참고하시어 가감하시기 바랍니다.